현대불교 전자게시판 15일 개통

현대불교 전자 게시판 … '부처님의 땅' 이란 뜻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실현 첨단매체

부다피아란

부다피아(Buddhapia, 부처님의 땅)는 현대불교신문이 구축, 제공하게 되는 불교정보 전문 전자게시판의 이름이다.
'부처님의 땅'이란 의미의 부다피아는 정보화 사회로의 흐름속에서 불교정보 보고의 기틀을 마련, 시대에 적응하는 전략의 체계를 구축하는 서곡이다. 또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첨단 매체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다피아는 총 20종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 주제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큰스님들의 설법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동화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통신망인 인터넷과의 접속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해외불교와의 정보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 창간 1주년을 맞아 본격 가동될 현대불교 전산정보시스템 '부다피아'는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모든 독자들에게 열려있다.

부다피아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입자를 모집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교정보 총망라 '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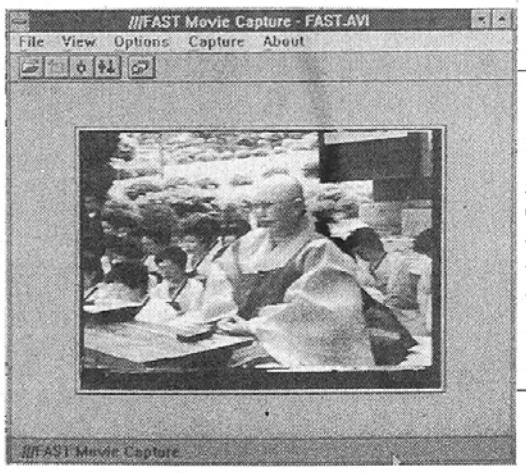
현대불교 영상 소프트웨어 교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5개월 연구 '개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중
주제·호수별 검색 …사찰 정보·교계 인물·북한 불교 등 열람 가능

흩어져 있는 불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이하 본사)전자게시판 부다피아(Buddhapia, 부처님의 땅)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10월15일 개통된다.

교계 최초로 개통되는 부다피아는 본사가 5개월여의 연구 개발끝에 서비스하게 되는 불교정보 전문 전자게시판으로 기존의 문자정보 이외에 음성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본사 전자게시판 부다피아에 접속하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큰스님 설법을 비롯 불교관련 비디오를 주문형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영상 지원을 위해 이미 영상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했다.



◇부다피아에 접속하면 큰스님 설법, 해외성지순례 등을 주문형 비디오로 볼 수 있다.

삼사장은 "거센 뉴미디어의 흐름속에서 교계도 시대적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부다피아가 질높은 불교정보를 제공, 국내의 명실상부한 불교정보 보고로 자리잡으면 인터넷과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 지향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개발의지를 밝혔다.

부다피아 이용안내
모뎀번호 732-1520~4

부다피아는 어떤 통신용 소프트웨어라도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손쉽게 접속.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누구나 부다피아에서 제공하는 불교관련정보와 지난 1년 동안의 본지 신문기사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하게 되면 영상지원 소프트웨어와 통신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받아, 부다피아에서 제공하는 큰스님 설법, 해외성지순례, 불교문화 등에 관한 화상 서비스를 주문형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다피아는 곧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모든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불교관련 멀티미디어데이타를 제공하며 부다피아 가입자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이는 불교정보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부다피아는 모든 텍스트자료의 검색범위를 선택, 주제어 검색을 통해 체계화된 국내외 사찰정보 및 큰스님설법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지난 1년동안의 현대불교신문 기사도 제공한다. 부다피아는 또 전자우편기능을 포함 대화광기능, 자료 전·수송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부다피아 개통에 앞서 본사대표 김광

부다피아는 교계인물, 사찰정보 등 불교관련 정보와 현대불교신문기사를 제공하는 자료실기능 이외에 가입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게시판기능, 회원들과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기능, 가입자간의 이야기방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각 메뉴는 메뉴번호나 영문인덱스를 치게 되면 해당 정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가입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사찰정보, 교계인물, 생활문화, 북한 불교 등의 자료를 주제어로 검색, 제공받는 이외에 게시판, 여론광장, PC통신대학 등을 통해 가입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방에서는 주제별 호수별로 지난 1년 동안의 신문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교계내 취업과 교육정보, 기업광고와 홍보를 포함하는 등 불교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집결시켜 생활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다피아의 모든 불교관련자료와 신문기사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새롭게 제공되며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될 계획이다.

남수미 기자





'부다피아' 메뉴 안내

1. 서비스안내	11. 광고·홍보
2. 교계 인물(분야별)	12. 공공정보
3. 교계 생활문화	13. 사용자 정보관리
4. 교계 취업 교육	14. 공지사항
5. 교계 과학 특수문헌	15. 자료실
6. 교계 경영산업	16. PC 통신대학
7. 북한불교(종교)	17. 전자우편
8. 국내 사찰정보	18. 신문방
9. 게시판	19. 현대불교신문사
10. 여론광장	20. 이야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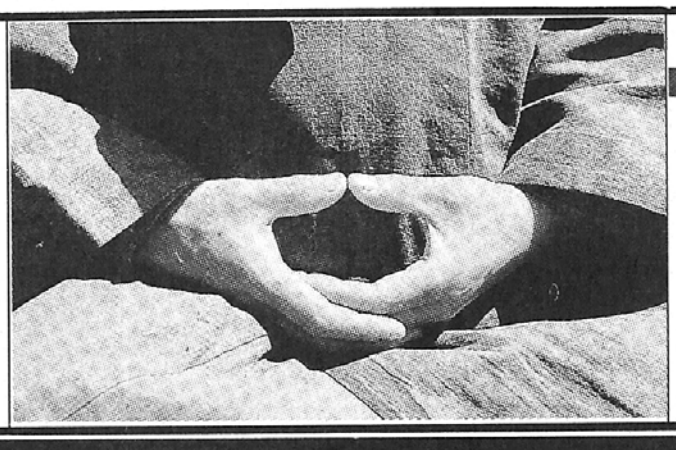
전자신문이란

200년 활자신문역사를 깨
오른 멀티미디어 전자
Newspaper).
지난 93년 20여개에 불과
7월말 현재 300여개로 늘어
97년에는 2000
여개로 늘어날 **활자**
전망이다.
전자신문은 기존의 활자
음성등이 추가된 멀티미디
서비스할 뿐 아니라 대화
서비스한다.
전자신문의 이용자들은
의문점이나 제보사항이 있
라인상에서 투고할 수 있으
슈나 논쟁거리를 주제로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 회원모집 : 수시접수(영구회원 접수중)
■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 문의전화 : (02) 735-6795·6796 / FAX (02) 730-929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한국신선도협회

지 부

■ 강원지부 : 동천관 전화 0361) 242-0553
관장·허 통 천

■ 일산지부 : 수신체육관 전화 0344) 914-0456
관장·김 일 영

경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축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